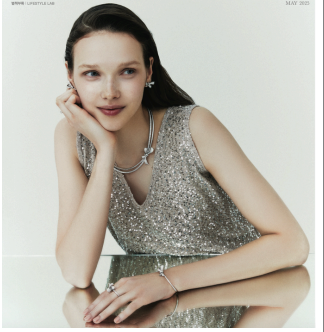




233 RUE ST HONORE, 75001 PARIS
+33(0)1 42 71 20 46
www.favoriparis.com
serge@favoriparis.com

Allegro Hicks

AVENUEL



MAI 2025

AVENUEL

PRINT

Yvette Yang

나폴리의 역사적 유산

영국과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알레그라 히크스(Allegro Hicks)가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에 맞춰 닐루파 데포(Nilufar Depot)에서 <나폴리 퓨처 노스텔지어(Napoli Future Nostalgia)> 전시를 선보인다. 자연과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감각적인 패턴과 질감의 청동 크로세(Crochet) 작품을 제작하는 알레그라 히크스는 나폴리의 역사적 유산을 이번 컬렉션에 도입했다. 청동 크로세로 만든 상들리에, 거울, 커피 테이블 등은 우아하고 정교하면서도 매우 독창적이다. 이탈리아 고대 유물과 같은 질감과 형태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발전시킨 가구와 소품들로 채워진 이번 전시는 예술과 공예,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작가 특유의 창의적 세계와 미적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는 8월 31일까지. 양윤정(뉴욕 통신원)

NEW YORK



Kim Yun Shin, 'Add Two Add One, Divide Two Divide One 2002-750', 2002
Courtesy of The Artist, Lehmann Maupin and Kukje Gallery

세계를 매혹하는 생명의 조각

한국 1세대 여성 조각가 김윤신의 첫 뉴욕 개인전이 리먼 머핀 뉴욕에서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된다. 아르헨티나 토착 나무와 오크스, 석영으로 완성한 '합이합일 분이분일' 조각 시리즈와 '내 영혼의 노래' 회화 시리즈 등 장르를 초월해 자연의 생명력을 담아내는 구순 작가의 70여 년의 화업 여정을 감상할 수 있다. 김윤신 작가의 작품 철학인 나누기(분)와 더하기(합)는 동양철학의 음양 사상을 토대로 한다. 단단한 나무와 예술가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고, 나무는 예술가의 손을 거쳐 새로운 작품으로 부리가 된다. 또한 그의 작품에는 한국전쟁을 비롯해 몸소 겪은 격동의 한국 역사와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을 넘나드는 디아스포라 정신이 녹아 있다. 뉴욕과 런던 등 세계 곳곳에서 전시되는 김윤신 작가의 작품이 보여주는 원초적인 생명력은 기후 위기 시대에 전 지구적 공감을 얻고 있다. 홍수경(뉴욕 통신원)

MILANO



알레그라 히크스의 'Minerva Chandeliers'와 'Golfolow Table'.

노동과 유희의 언어

2022년 신춘문예로 등단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백가경 시인의 첫 시집 <하이퍼큐비클>이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되었다. 시집의 제목인 '하이퍼큐비클'은 정사각형의 모든 변을 시공간을 초월해 n차원으로 확장한 다포체 '하이퍼큐브'와 사무실 등의 공적 공간 속에 존재하는 사적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칸막이를 뜻하는 '큐비클'을 합친 조어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현실의 벽과 인간을 가두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출구 없음'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저자는 '시인의 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큐비클은 이제 지층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중략) 이곳에서 일하는 자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돌이킬 수 없는, 과로 상태." 건축가의 태도로 설계하고 쌓아 올린 백가경 시인의 언어는 노동의 흔적인 동시에 유희의 결과물이다. 우리의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크고 작은 고통과 책무와 비극을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시인은 언어라는 놀잇감을 활용해 폭발력 있는 유희의 장을 만들어낸다. — A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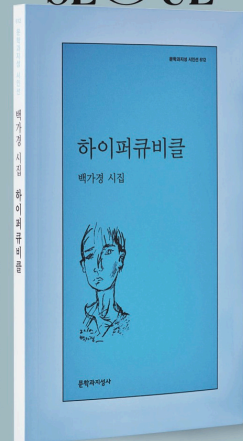


PHOTO 이현지

Naples' historical heritage

Allegra Hicks, an artist based in the UK and Italy, presents Napoli Future Nostalgia at Nilufar Depot during Milan Design Week. Inspired by nature and mythology, Allegra Hicks creates sensuous patterns and textures in bronze crochet, incorporating the historical heritage of Naples into her collection. The chandeliers, mirrors, and coffee tables made of bronze crochet are elegant, sophisticated, and very original. Filled with furniture and accessories that develop the texture and form of ancient Italian artifacts into contemporary design, the exhibition i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artist's unique creative world and aesthetic sense where art and craft, past and future coexist.

(European Correspondent)